

전 남

“농정원, 세종시 이전 안된다”

전남도·나주시, 국토부 결정에 강력 반발

이전 후보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결국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되면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농정원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문화정보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등이 통합합돼 지난 5월 신설된 기구이며, 임직원은 108명 규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분리 전까지 같은 조직으로 있었던 농정원의 나주 이전도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에는 농정원이 나주시를 상대로 세종시 이전 동의를 전제로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루머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30일 농정원의 세종시 이전 심의가 불합리한 만큼 분회의 재심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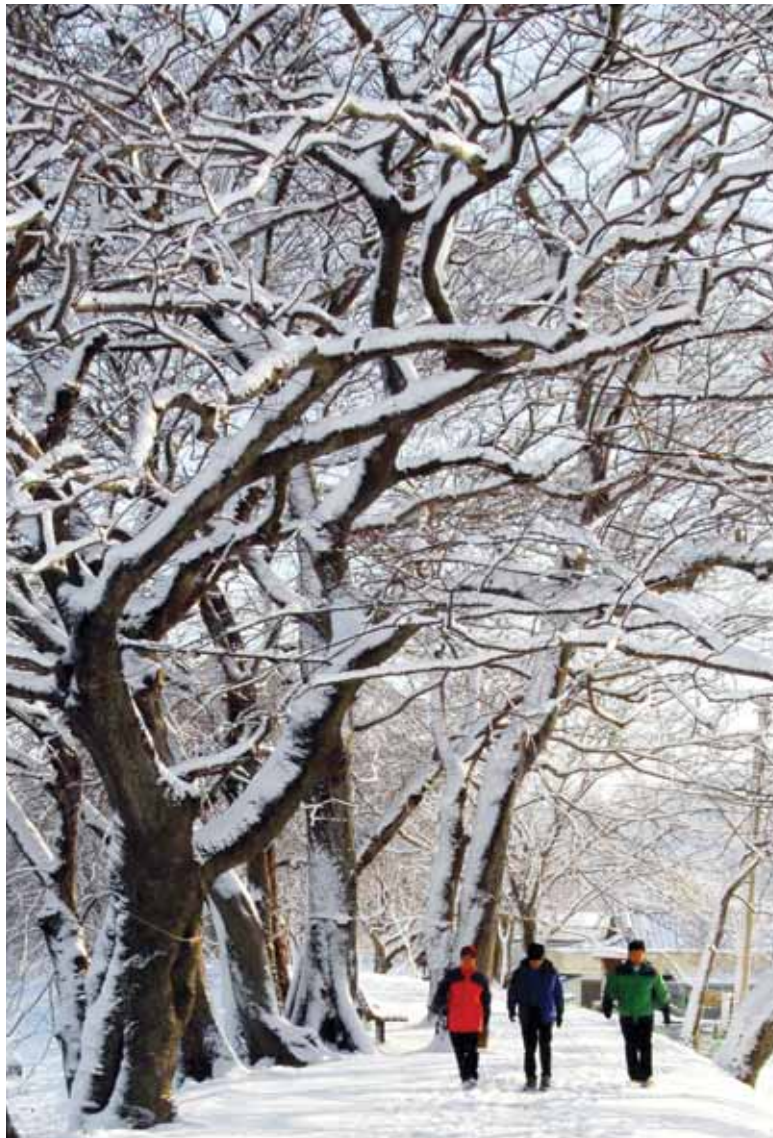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당초

이전 기관인 15곳 이외에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65명의 추가 이전이 결정돼 현재 16개 기관이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4곳은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일부는 청사 신축 중에 있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농정원이 결국 세종시로 가게 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부처의 이기심 등으로 그 의미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관방제림 ‘국보급’ 설정

관방제림은 300~400년 이상 된 팽나무와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노거수가 2km에 걸쳐 풍치림을 이루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금오도 비렁길 직항로 여객선 운항

(주)좌수영해운은 지난 30일 여수시 화정면 백야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이튿날부터 백야도~함구미~직포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분 만에 비렁길 1코스 출발점인 함구미에 도착하며, 25분 뒤에는 직포항(2코스 중점, 3코스 출발점)에 도착한다.

신한 페리호는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의 하루 3편,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 4편 이상 왕복 운항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강진 청자축제 ‘최우수’

광주 충장·담양 대나무·진도 바닷길 ‘우수’

문광부 우수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와 광주 7080 충장축제, 강진 청자축제 등 광주, 전남·북지역 11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현장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김제 지평선축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했다.

강진 청자축제와 무주반딧불 축제 등 8개 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광주 7080충장축제와 담양 대나무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했다.

또 광주 김치대축제와 목포 해양문화축제, 보성다향계 녹차대축제, 순창 장류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등 전국 22개 축제를 ‘유망축제’로 선정했다.

광주 동구에서 여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2013년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선정돼 3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충장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 ▲특색 있는 참

어·체험 프로그램 ▲축제발전성 및 성과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도한 추어의 테마거리는 관람객의 만족도와 호응도를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목포시는 세계 최초 바다 분수인 ‘춤추는 바다 분수’가 한국 기네스에 선정되며 이어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개최 8회째 만에 ‘2013년 문화부 대표 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고규성기자 yousou@

빙벽체험하고 설산 트레킹하고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개막

‘제2회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지난 29일 남원시 운봉읍 허브밸리 주차장에서 개막했다.

남원시 운봉읍 애화리와 운봉읍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눈·사랑·건강’을 주제로 2월11일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눈썰매·얼음 썰매 타기,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 대회, 눈 조각 전시, 연날리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눈꽃 등반대회는 개막식 후 이환주 시장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를 시작으로 1월12일에는 산악인 손영조 대장의 등반대회 등이 열린다.

빙벽체험장에서는 박진갑 넘치는 겨울 스포츠의 진수를 경험

할 수 있다. 축제기간 눈꽃이 곱게 핀 등산로를 따라 바래봉 정상까지 트레킹하며 지리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20m 길이의 눈썰매장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짜릿함을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눈꽃축제가 열리는 운봉 허브밸리는 해발 500~600m로 적설량이 많고 눈이 내리면 잘 녹지 않아 매년 아름다운 은빛 설원을 이루고 있다.

한편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지난해 4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한국관광공사 가 꼽은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문화관광예산 114억

군립도서관 건립 37억

순창군이 2013년도 문화관광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같이 크게 증액된 배경에는 2012년보다 3배가 많은 4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독서문화의 다목적 복합시설을 갖춘 군립도서관 건립에 37억원 ▲군민들이 영도 관광을 위해 인근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사업에 32억원이 투자된다.

초대 대법원장 개인 김병로선생의 업적 향양을 위한 생가복원 사업과 훈몽재 복합건물 신축사업에도 10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섬진강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구립민 호정소 유원지개발사업, 추령 장승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모두 148억원을 들여 2013년 초에 본격 착수한다.

이 밖에도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콘도 97객실, 아쿠아, 스파 시설을 갖춘 강천산 관광휴양 단지 조성사업도 2013년에 착공하고, 강천산 탐방로조성사업과 섬진강 A+A 타운 벨트 조성사업도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뜨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항 7부두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군산 항만청, 에너지공단 등과 타당성 조사 연구 협약

정부가 위도 등지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확정된 가운데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이 군산항 7부두(75선석)를 해상풍력발전 지원부두로 조성한다.

군산 항만청은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산재에너지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군산항 7부두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2만t급 1개 선석(210m) 규모로 총 사업비 700억원(접안시설 422억원·상부시설 278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운영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아 물동량 분석을 비롯한 부두 개발 타당성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3

월 말에 내놓게 된다.

군산항은 지난 7월 목포항과의 지방해양항만청이 군산항 7부두(75선석)를 해상풍력발전 지원부두로 조성한다. 핵심 부품인 터빈과 블레이드(날개), 타워 등을 이곳에서 생산해 해상으로 옮겨 설치하는 배후단지 역할을 맡는다.

한편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위도와 영광 앞바다에 ▲2014년까지 실증단계(100MW) ▲2016까지 시범단계(400MW) ▲2019년까지 확산단계(2000MW)로 나뉘 10조 1000억원의 들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 청자박물관서

5월까지 도예작품전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한국도자문화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도예작품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회가 펼쳐진다.

부안군은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5월까지 보안면 유천리 부안청자박물관에서 도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작품은 재단이 소장하는 현대 도에 대표작품을 비롯해 생활도자기, 경기도자비엔날레 우수작품 및 국제 공모전 수상작품, 2001~2009년 세계 현대도자전에 출품한 도자기 등 100여점이다.

전시기간에 2013년 세계 도자비엔날레를 알리는 전시전도 열린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농기계 임대사업장 개장

활용, 관내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강수(오른쪽) 고창군수와 고창지역 농업인들이 최근 문을 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총 54종 176대의 농기계를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무안군 부적절 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전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무안군의 부적절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무안군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정 86건(시정 및 개선 61, 주의 25)을 적발해 2억 8200만원은 회수, 1억6800만원은 추징, 5억8800만원은 감액했고, 41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무안군은 지난 2008년 6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남악지구 1, 2공구 내 상록가로수 3093주를 인수받았으

나 이 가운데 57%인 1775주가 5년새 감풍과 추위에 고사했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는 또 공동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울타리 3분기까지 분양공급한 계약체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학교용지 부담금 6900만원을 제때 부과하지 못해 누락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시정조치와 함께 훈계 처분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리광산 허가 연장 반대

강진군민·백련사보존 추진위, 서명 운동

강진군민들이 유리광산 업체의 부지허가 기간연장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유)만덕 광업개발(사진)은 지난 17일 군에 강진군 도암면 산 2071번지 일대 덕룡산 군유림 산 부지 대부허가기간 연장을 2017년 12월 22일까지 5년간 신청한 상태며, 강진군은 이를 4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백련사 용혈암 보존복원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17일 만덕광업개발 부지 대부 연장 신청을 반대하며 군민 300여 명의 반대 뜻이 담긴 진정서를 군에 접수한 데 이어 29일 집회소고를 거쳐 2차 서명 운동

을 펼치고 있다.

만덕광업은 198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여 차례에 걸쳐 산림훼손(21년)·지하 채광(11년)이 33년이나 지속하면서 덕룡산 일대가 유리원료인 규사 가루로 뒤덮여 지표면은 물론 땅속까지 크게 훼손돼 환경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신영호(59) 용혈암복원 추진위원장은 “33년 동안 산을 파헤친 불교문화유산과 덕룡산 자연경관 훼손을 바라볼 수 없다”며 “군민을 상대로 담긴 진정서를 군에 접수한 데 이어 29일 집회소고를 거쳐 2차 서명 운동

/강진=남철희기자 chou@



단신

도민 90% “야구 10구단 창단하면 관람”

전북 도민 10명 중 9명꼴은 부영-전북이 추진하는 프로야구 10구단이 생기면 야구장을 찾아 관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영-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추진위원회’가 경희대 스포츠산업경영 연구소에 맡겨 지난 20~21일 전주, 군산, 익산, 완주군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심층설문 조사 결과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89.7%가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40.8%가 홈구장 연터켓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익산, 완주군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심층설문 조사 결과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89.7%가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40.8%가 홈구장 연터켓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군산시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우수

군산시의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이 공동 추진한 조선·기계분야 특수용접 과정이 고용노동부 주최·한국능률협회 주관의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총 1억5800만원을 투입해 운영한 조선·기계분야 특수용접 과정은 지난 5월 시작해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돼 1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 이중 1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남원 농기센터, 미꾸리 실내 양식기술 개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인공 부하식인 미꾸리 치어를 겨울철에 실내에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센터는 지난 9월 이후 인공부하로 생산된 미꾸리 치어를 노지에 입식할 수 없으므로 동절기 실내 양식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실시

한 결과 130일령까지 성공했다. 앞으로 노지 입식가능한 시기인 4월까지 양식할 경우 250일령까지 실내 양식이 가능하게 돼 상여 출하기간을 6개월정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연구중에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군, 정년퇴직 공무원에 공로패

고창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정년퇴직 공무원 7명에게 정 부포상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퇴직 공무원은 현영기 전 환경위생사업소장, 부안면 장영남, 해리면 김시용, 심원면 김순성, 고창읍 오윤탁, 성송면 김원철, 보

건소 조안순씨 등 총 7명이다. 현영기 사무관은 녹조근정훈장, 장영남 주무관은 육조근정훈장, 김시용·김순성 부면장은 대통령 표창을, 오윤탁씨와 김원철씨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